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2. Vol. 23. No. 2. pp. 243~272.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에 관한 연구*

이창호** · 김연우***

초 록

최근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이 급증하였지만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성 연구가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책임성과 향후 봉사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즉 임파워먼트 효과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은 2011년 7~8월 여름방학동안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및 아프리카 케냐 등 6개국에 파견되어 약 12일간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행한 227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봉사활동 전과 비교하였을 때 봉사활동 참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책임성과 봉사활동 지속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임파워먼트 효과에 영향을 미친 세부요인은 해외자원봉사활동기간 동안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태도였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참여자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전보다 사회적 책임감이 높아지고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도 향상되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임파워먼트 효과가 대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 임파워먼트 효과, 해외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 이 논문은 2012년도 남서울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신저자, changho0497@naver.co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서 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현재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활동이 되었으며, 수많은 자원봉사활동 동아리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내자원봉사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청소년 장・단기 해외자원봉사활동도 급격히 늘어났다. 전국 190여 대학 총・학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방학을 활용하여 매년 대학생 300여 명을 3주 일정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국외로 파견하고 있다. 본 사업은 1997년에 시작하여 6년간 대학생 1,256명을 파견하였고(이석열, 2004), 현재까지 총 파견자 수는 7,000명이 넘는다. 또한 2011년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KOICA)를 포함한 많은 정부부처는 정부지원의 해외자원봉사활동단을 모두 통합한 『World Friend Korea (WFK)』를 발족하였고,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도 수립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에 따라, 매년 2년 일정(장기)으로 국제협력단(KOICA)봉사단 1,800여명, 3~6개월(중기) 및 2~3주(단기) 일정으로 연 3,000명을 해외자원봉사활동단으로 파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만 명을 해외에 자원봉사자로 파견할 계획이다(WFT 통합시행 TF, 2010).

국제원조NGO들의 중・단기 해외자원봉사활동단 파견 사업도 활발하다. (사)코피온(COPION)은 매년 대학생 70~80명을 6개월~1년(중・장기)동안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며,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300여 명을 10일~2주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단기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내고 있다(코피온, 2011). 이 밖에도 국제워크캠프, 아시아태평양협회(PAS), 한국해비타트, 국제기아대책 등 다양한 NGO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을 받아 청소년을 모집하여 해외자원봉사활동단을 파견하고 있다.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해외자원봉사활동단을 파견하는 숫자도 적지 않다. 이성철(2003)은 1997~2002년 동안 대학이 자체 파견한 해외자원봉사활동단원 수가 총 3,694명임을 발표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 그 숫자는 수만 명을 헤아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파견하는 장・단기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단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제원조・봉사관련 NGO는 매년 1만 여명 이상을 해외자원봉사활동단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대학생 등 20대 초반 청소년일 것으로 추산된다(이창호, 2011).

청소년기 자원봉사활동은 성년 또는 사회인으로 접어드는 청소년들이 나와 다른 타인 및 사회를 알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하는 좋은 기회이다(이성은, 2009; 이수연・김형모; 2011). 특히,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에 상주하며 지구촌의 가난한 아동과 주민들을 돌본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도전정신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점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은 국내자원봉사활동보다 청소년에게 더욱 큰 인생의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다. 특히, 잘 조직화된 해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흥미를 높여 지속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것이다(박준홍 외, 2011).

이처럼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1990년 중반부터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여러 형태로 제도화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많은 관련 연구들이 등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봉사활동에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학위논문이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0편 미만이고 그 중에도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한편도 없는 실정이다.[1)]

반면 외국의 경우 비록 종단적, 의사실험적 연구등과 같이 제대로 된 실험적 연구는 부족하지만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참가 청소년들에 미친 효과에 대한 횡단적(cross-sectional) 또는 사전사후(pre-post) 설계 연구는 꽤 있는 편이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IVS: International Volunteering and Service)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구촌의 지식경제 사회에 적응할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길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herranden et al., 2008).

본 연구는 이 같은 맥락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이 한국의 참가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임파워먼트의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임파워먼트 중에서도 특히 대인적 임파워먼트 결과인 사회적 책임감과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 결과인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임파워먼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이는 국내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KISS, DBPia, e-article,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원, 학위논문공동협의회 등을 모두 검색한 결과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

임파워먼트 이론(empowerment theory)은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임파워먼트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 약점보다는 강점의 강조,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Rappaport, 1984; 이성은, 2009). Parsons(1999)는 임파워먼트의 결과를 개인적, 대인관계, 지역사회・정치적인 측면으로 나눈다.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자신을 임파워먼트하여 자기인식, 자기수용, 자아존중감을,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타인과 상호작용, 수용성, 이타성, 문제해결능력을,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김희성, 2002).

임파워먼트 이론과 관련, 이수연과 김형모(2011)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을 임파워먼트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와 다른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기수용,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임파워먼트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임파워먼트 중 특히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증가는 결국 사회적 책임감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 은지용(2002)은 사회적 책임감을 '관용정신'으로 명명하여, 타인의 문화를 수용하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의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를 밝혔다.

이 밖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을 임파워먼트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다. 문성호와 문호영(2009)은 전국 중·고등학생자원봉사대회 참여 청소년과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을 비교하여, 자원봉사대회 참여 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타인을 편견 없이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호일 외(2003)는 부적응 학생이 장애학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후 타인에 대해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이지윤(2003)의 연구도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타인을 도와주는 너그러움과 봉사성이 발달하였음을 밝혔다. 김동배와 조학래(1997)의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청소년의 도덕성을 발달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허성호와 정태연(2010)은 한국청소년패널 6개년 자료에 대한 종단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부모, 친구 등 주변인물과 애착관계를 더 강화하고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수연과 김형모(2011)의 연구에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이 대인관계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책임감 발달의 관계성은 국외연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Riecken은 자원봉사자들이 빈민지역에서 근로봉사 활동에 참여한 후 빈곤층에 대해 감정이입적 태도를 보였음을 밝혔고(Riecken, 1952; 김동배・조학래, 1997에서 재인용), Newmann과 Rutter는 정규수업에서 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성이 함양됨을 보고했다(Rutter, 1983; 김동배・조학래, 1997에서 재인용).

한편,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효과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다수의 국외연구에서는 해외자원봉사활동 역시 참가 청소년들의 성숙감, 자존심, 자아효능감, 자의식과 독립심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ross, 1998; Thomas, 2001; Wilson, 2000). 해외자원봉사활동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해 상호이해를 증가시키고(Zimmerman, 1995), 타 문화 수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outh House Exchange & CWY, 2006).

Stein(1966)은 해외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보고한 뒤,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에게 반성과 인간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중요한 '심리-사회적 정지기간(moratorium)'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타문화 수용역량(Intercultural competency)을 기르게 하고, 오늘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적절하게 행동토록 하며(Fantini & Tirmizi, 2007), 이는 결국 시민적 가치와 기술을 고양하는 시민학습(civic learning)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EVS 2001; Mutz & Schwimmbeck 2005; Smith et al., 2002).

이처럼 많은 국외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구촌의 공동선을 증진하는 책임감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한다(Fantini & Tirmizi 2007; Powell & Bratovic, 2007; Purvis, 1993).

한편 임파워먼트 효과의 또 다른 측면인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자원봉사활동이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밝히고 있다. Riecken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이후 봉사지향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혔고, Conrad와 Hedin은 자원봉사활동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정신을 함양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Riecken, 1952; Conrad & Hedin, 1989; 김동배・조학래, 1997에서 재인용). 또한 Morrissey와 Werner-Wilson (2005)도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문성호와 문호영(2009)은 자원봉사활동으로 공동체의식이 향상됨을 보여주었고, 이수연과 김형모(2011)도 자원봉사활동이 비행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2. 임파워먼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많은 학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어떠한 요인이 청소년을 더욱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지, 즉 임파워먼트 요인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원봉사활동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발견은 자원봉사활동 기관이 자원봉사활동 수혜자뿐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많은 함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해외자원봉사활동 참가자의 어떤 특성들이 임파워먼트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 적이 거의 없다.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을 크게 나누면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원봉사활동 준비과정 요인, 자원봉사활동 행위요인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성별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대인관계,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김철수, 1996; 이수연・김형모, 2011), 일부 연구는 성별이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이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김정헌, 2010; 최경자・송다영, 2008).

연령의 경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의 효과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에 전 연령대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효과가 크다는 연구(김정헌, 2010; 황선영, 2006; Cnaan & Cascio, 1998)와 동시에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가 더 향상된다는 연구(김철수, 1996)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만을 대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간 연령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가 전 연령대의 연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그중에서도 특히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보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다른 연령대보다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학력과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의 학력 차이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전 연령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학력의 영향력을 본 연구를 살펴보면, 학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이었다(김정헌, 2010; 최경자・송다영, 2008). 그러나 이 또한 청소년에게 적용하였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있어 역시 10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게만 된다면 향후 지속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준비도도 임파워먼트 효과면에서 차이를 가져올 주요 요인이다(이수연・김형모, 2011). 이는 과거 자원봉사활동를 했던 경험과 사전교육 여부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 준비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특히 이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사회적 책임감과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증가시키는 임파워먼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김정헌, 2010; 김진숙, 1999; 홍연숙, 2002; Cnaan & Cascio, 1998). 또한 이전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자아정체감 발달, 학교생활적응 등 개인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김기수, 2010; 윤미라, 2002; 장덕희 외, 2011).

이들 선행연구는 해외자원봉사활동에서도 이전의 해외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해외자원봉사활동 참가 동기의 중요 요인 중 하나가 과거 해외자원봉사활동이나 국제경험이었다. 즉,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사전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화적 능숙성'(cultural proficiency)을 갖게 하고 다시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나서게 한다는 것이다(Cohn & Wood, 1985; Gran, 2006; Rehberg, 2005).

사전교육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태도 등에 영향을 미쳐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운중, 2000).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

들이 사전교육 이수여부가 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김성종・엄성호, 2002; 김운중, 2000; 황선영, 2006; Cnaan & Cascio, 1998; Watson, 1993). 해외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그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교육 나아가 일반론적인 지구시민교육은 그 점에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자들의 임파워먼트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의 행위요인은 크게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자원봉사활동 수행태도 및 자원봉사활동의 구조인 팀 규모를 말한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는 자원봉사활동의 시작뿐 아니라 효과를 결정하는데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류기형 외, 2001; Clary & Snyder, 1999; Cnaan & Cascio, 1998; Hackman & Oldham, 1975).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할 경우, 더욱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재참여의사나 지속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 동기가 강할수록, 사회적 책임감과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가 높아졌다(김성종・엄성호, 2002; 김진숙, 1999; 김현진・이동수, 2011; 박성복・김규희, 2008; 박세혁, 2010; Clary & Snyder, 1999; Cnaan & Cascio, 1998).

자원봉사활동 태도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느냐를 말한다.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 자원봉사자의 경우에 사회적 책임감이 발달되고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가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김성종・엄성호, 2002; 김진숙, 1999). 적극적 태도는 대인 관계적,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뿐 아니라 개인적 임파워먼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수, 2010; 박성복・김규희, 2008; 윤미라, 2002; 홍연숙, 2002).

자원봉사활동의 구조적 요인인 팀 규모는 한 팀당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수를 의미한다. 집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의식, 소속감, 사회적 인정, 사회적 접촉, 사회적 책임감의 욕구 등을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소집단 및 동아리 참여형태는 청소년의 특질을 잘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참여형태라 볼 수 있다(권순미, 2005; 김영호, 2005). 이 같은 맥락 하에 활동단위와 팀 규모는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 및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 책임감과 향후 지속의지

의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전준비 및 참여 태도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중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의 사회적 책임감 및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임파워먼트 효과를 관찰한 연구는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참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의 임파워먼트 효과만을 살펴본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모두 국내자원봉사활동에 한정된 연구 결과들이다.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에도 그 조사결과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연구는 아직 없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은 국내 자원봉사활동과 달리 활동지역이 먼 타국이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만나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국내 자원봉사활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성민정, 2006). 그러나 인종, 언어, 이념, 종교를 뛰어 넘어 타인과 지구촌 사회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행위라는 점에서 참가 청소년들의 대인적,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가 증가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의 기대효과가 국내자원봉사활동보다 더 클 것이라는 추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별로 행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해외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참가자 만족도에 대해서만 연구를 일부 진행했을 뿐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이 중심이 된 해외자원봉사활동이 현지 아동들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처음 등장했다(이창호, 2011).

본 연구는 해외 자원봉사활동이 참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영향이 미쳤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청소년에 대한 대인관계적,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다. 첫째, 방학을 맞아 아시아・아프리카 등 팀별로 단기 해외자원봉사활동을 떠나는 청소년 해외자

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사전과 사후 시점을 나누어 참여 청소년들에게 본 연구의 조사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팀에서 수거된 설문지를 통계처리, 연구모형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 냈다.

본 연구가 활용한 해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국제봉사단 파견 전문 NGO인 (사)코피온이 2011년 7~8월 여름방학 동안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및 아프리카 케냐 등 6개 국가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단기 해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모두 10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삼성, G마켓, LS 등 기업(100% 지원)이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학교 70% 지원) 등 학교로부터 참가비 지원을 받고 선발된 학생이다. 선발기준은 각 선발주체에 따라 국내 자원봉사 경력, 학업, 성적, 소득 등 다양하다.

참가자들은 파견국의 코피온 센터나 현지 NGO의 주선으로 초등학교·유치원·지역사회 등에 배치돼, 평균 10일 정도의 일정 중 6~7일은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하고 이후 현지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 각국 파견은 팀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각 팀은 해외자원봉사 경험이 많고 코피온으로부터 P-A-R 기법 등에 대해 특별훈련을 받은 인솔자 1인과 평균 20인의 팀원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당시 코피온이 진행한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각 팀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표 1> 삼성 열린 장학생 해외봉사단 활동(11박 12일) :
캄보디아(파견기간: 2011년 8월 15일~8월 26일)

<table>
<tr><th>일시</th><th>1일차</th><th>2일차</th><th>3일차</th><th>4일차</th><th>5일차</th><th>6일차</th><th>7일차</th><th>8일차</th><th>9일차</th><th>10일차</th><th>11일차</th><th>12일차</th></tr>
<tr><td>7:00
-
8:00</td><td rowspan="5"></td><td>기상
조식</td><td>기상
조식</td><td>기상
조식</td><td>기상
조식</td><td>기상
조식</td><td rowspan="3">개인
정비
시간</td><td>기상
조식</td><td>기상
조식</td><td>기상
조식</td><td>기상
조식</td><td>인천
도착</td></tr>
<tr><td>9:00
-
11:00</td><td>오리엔
테이션</td><td>환경
미화</td><td>GDI
로고
벽화
작업</td><td>화장실
만들기</td><td>기숙사
만들기</td><td>미니
올림픽</td><td>최종
공연
준비</td><td>씨엠립
이동</td><td>앙코르
와트
방문</td><td rowspan="3">해산</td></tr>
<tr><td>12:00</td><td rowspan="2">중식</td><td>중식</td><td>중식</td><td>중식</td><td>중식</td><td rowspan="2">중식</td><td>중식</td><td>중식</td><td>중식</td><td>중식</td></tr>
<tr><td>13:00</td><td>봉사
준비</td><td>봉사
준비</td><td>봉사
준비</td><td>봉사
준비</td><td>봉사
준비</td><td>봉사
준비</td><td>이동</td><td></td></tr>
</table>

일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4:00		GDI 방문 (아이들과의 첫 만남)	[문화공연] 태권무	[문화공연] 난타	[문화공연] 태권무	[문화공연] 난타	문화탐방	최종 공연 준비	바자회	왕궁 방문	앙코르톰 방문	해산
15:00										씨엠립 이동		
16:00			[문화공연] 버블아트	[문화공연] K-pop	[문화공연] 패션쇼	[문화공연] 플래쉬몹		행복강의				
17:00												
18:00	인천 출국	석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19:0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야시장 방문	
20:00		평가회의	평가회의	평가회의	평가회의	평가회의	평가회의	평가회의	평가준비			
21:00		활동준비	활동준비	활동준비	활동준비	활동준비	활동준비	활동준비	프로그램 준비		공항 이동	
22:00	현지 도착											
23: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표 2> G마켓 16기 해외봉사단 활동(10박 11일):
필리핀(파견기간: 2011년 8월 4일~8월 14일)

일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6:30	8:00 인천 출발	기상 및 세면									
7:00		아침운동									
		아침식사, 설거지									
		준비 및 이동									
8:00	12:30 마닐라 도착	기관방문 교육봉사	바자회	교육봉사	교육봉사	교육봉사	교육봉사	교육봉사/ 문화봉사	팍상한 폭포	따가이따이 (화산지역)방문	12:15 마닐라 출발
9:00											
10:00											
11:00											
12:00		점심식사, 설거지		점심식사, 설거지							
13:00	오리엔테이션	미니 운동회	Home Stay (2인 1조)	노력봉사	노력봉사	노력봉사	위생교육 봉사	온천 방문	팍상한 폭포	따가이따이 방문	17:15 인천 도착
14:00											
15:00	주변 견학			문화교류			급식봉사		쇼핑몰 방문	문화교류	
16:00											
17:00		농구대회									
18:00	저녁식사, 설거지 및 휴식										
20:00	활동평가, 익일준비										
23:00	취침										

2.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이상과 같이 (사)코피온 봉사단원들은 파견국의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체로 한글공부,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사전 설문에 응했고 귀국 비행기에서 사후 설문조사에 응했다. 따라서 설문지 수거율은 거의 100%라 할 수 있다. 설문지는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전 자원봉사활동 경험, 자원봉사자의 심리정서적 특성, 본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등 준비도와 실태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참여 청소년들을 대인관계적, 지역사회・정치적인 면에서 임파워먼트하며, 참여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임파워먼트의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참여 청소년을 대인관계적,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시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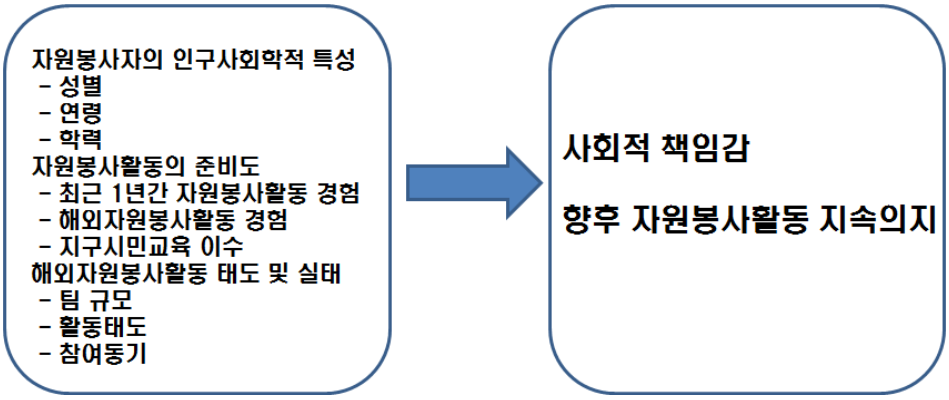
연구문제 1-1: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참여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참여 청소년의 향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구성 특성이나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효과에서 차이가 발생하는가?

연구문제 2-1: 해외자원봉사활동이나 참여 청소년의 어떤 특성이 그들의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해외자원봉사활동이나 참여 청소년의 어떤 특성이 그들의 향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3.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적 책임감과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다. 사회적 책임감은 '자원봉사활동 후(後)의 사회적 책임감 - 자원봉사활동 전(前)의 사회적 책임감'을 말한다. 즉, 봉사활동 전-후의 사회적 책임감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사회적 책임감은 은지용(2002)의 '관용정신'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α=.807). 은지용(2002)은 관용정신을 자신의 가치와 신념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의식으로 정의하였으며, 세부 문항을 타인의 차이점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식, 타인의 사고방식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가짐, 타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히 대하는 태도,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차별적 행위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부당함을 말하는 행동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본 척도는 타인에 대한 수용도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위한 노력을 측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명이 척도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관용정신' 척도를 '사회적 책임감'으로 명명하여 활용하고자 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는 '자원봉사활동 직전, 직후에 측정한 자원봉사활동 지

속의지'를 말한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는 국내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2문항, 해외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사회적 책임감과 마찬가지로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가 높음을 나타낸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참여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원봉사활동 준비도, 자원봉사활동 태도 및 실태 등이다. 본 연구는 이들 각각의 세부 독립변수가 참여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과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원봉사자의 성별, 연령, 학력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적 변수로 만 연령을 입력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재학 이하 0, 대학(교)재학 이상 1로 코딩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준비도는 청소년의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지구시민교육 이수여부로 구성하였다.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와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와 관련해서는 경험유무에 따라 각각 1, 0으로 코딩하였고,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인 지구시민교육 이수여부도 이수자를 1, 비이수자를 0으로 입력하였다.

해외자원봉사활동 태도 및 실태는 해외자원봉사활동 팀 규모, 해외자원봉사활동 태도,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로 구성하였다. 해외자원봉사활동 팀 규모는 한 팀당 팀원 수를 뜻하며 연속적 변수로 입력하였다. 해외자원봉사활동 태도는 참가자들이 참여 태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자가 측정하도록 하였다. 1점은 매우 소극적, 5점은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말한다.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는 이번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희망과 동기강도를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모두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동기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모형인 프로그램 전-후의 사회적 책임감과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를 비교하기 위해 분석방법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모형인 임파워먼트 효과를 높이는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 청소년의 특성

(사)코피온의 2011년 여름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 청소년 241명 중 남성은 114명(50.2%), 여성은 113명(49.8%)이며 남녀 수가 비슷했으면 연령은 평균 20.25세였다. 청소년의 학력은 고등학교졸업 이하 27.8%, 대학(교) 입학 이상 72.2%로 대학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현 거주지는 대도시 59.9%, 중소도시 33.9%, 농어촌 6.2%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어실력은 79.2%가 '중'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참여 청소년의 75.3%는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12.3%는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었다.

이번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동기와 태도를 측정한 결과, 90점 만점에 58.69점이었다. 많은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낮게 나왔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본인 보다는 부모 등 외부 권유에 의해 참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르게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21점이었다.

<표 3> 기술통계

(단위: 명, %, 세, 점)

변 수		분석대상	비율(평균)
성	남자	(114)	50.2
	여자	(113)	49.8
연령		(227)	20.75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63)	27.8
	대학(교)입학 이상	(164)	72.2
거주지역	대도시	(136)	59.9
	중소도시	(77)	33.9
	농어촌	(14)	6.2
영어능력	상	(14)	6.2
	중상	(56)	24.8
	중	(109)	48.2
	중하	(42)	18.6
	하	(5)	2.2
지구시민교육 이수경험	없음	(136)	59.9
	있음	(91)	40.1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경험	없음	(171)	75.3
	있음	(56)	24.7
해외자원봉사활동경험	없음	(28)	12.3
	있음	(199)	87.7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18~90점)		(227)	57.68
해외자원봉사활동 태도(1~5점)		(227)	4.21
해외자원봉사활동 소속팀 규모		(227)	21.62

이번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참여계기를 살펴보면, 40.4%는 스스로 인터넷 등을 찾아 참여하였고 언론매체 홍보를 보고 지원한 청소년은 30.7%였다. 이 외에 친구의 권유 8.9%, 학교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권유 8.4%, 부모님의 권유 6.2%순이었다.

한편, 청소년의 국가 선택기준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시기 및 기간을 보고 선택했다는 응답이 20.4%, 해당국가에 대한 호기심이 21.7%, 일의 내용과 취향 일치도를 보

고 선택했다는 응답이 1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없이 국가가 배정되었다는 청소년이 전체의 41.2%나 되었다. 이는 삼성이 캄보디아를, LS는 베트남을,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필리핀을 이미 지정해 봉사단을 모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과정 및 국가선택기준

(단위: 명, %)

구 분		(분석대상)	비 율
참여계기	언론매체 홍보를 보고	(69)	30.7
	학교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권유	(19)	8.4
	부모님의 권유	(14)	6.2
	친구의 권유	(20)	8.9
	자발적으로 (스스로 찾아)	(91)	40.4
	기타	(12)	5.3
국가선택기준	봉사활동시기 및 기간	(46)	20.4
	해당국가에 대한 호기심	(49)	21.7
	일의 내용과 취향 일치도	(29)	12.8
	숙박 및 교통 편의	(1)	0.4
	선택의 여지없이 신청, 선발	(93)	41.2
	기타	(8)	3.5

주: 참여동기 분석결과는 무응답 2케이스를 제외하여 결과이며, 국가선택기준 분석결과는 무응답 1케이스를 제외하였음.

한편, 청소년의 봉사지역은 농어촌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도시 30.4%, 중소도시 29.1%이었다. 현지 봉사기관은 학교 47.1%, 복지시설 27.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외에 한국NGO기관 15.9%, 농촌마을 7.5% 등이었다. 주된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교육, 학습지도가 전체의 45.2%이었고, 다음으로 환경, 시설수리 27.4%, 공연, 문화교류 11.9% 순이었다.

<표 5> 해외자원봉사활동 기간·장소 및 조직규모와 활동내용

(단위: 명, %)

구 분		(분석대상)	비 율
봉사지역	대도시	(69)	30.4
	중소도시	(66)	29.1
	농어촌	(92)	40.5
현지봉사기관	학교	(107)	47.1
	복지시설	(63)	27.8
	농촌마을	(17)	7.5
	한국NGO기관	(36)	15.9
	기타	(4)	1.7
주된 활동	교육, 학습지도	(102)	45.2
	환경, 시설수리	(62)	27.4
	공연, 문화교류	(27)	11.9
	지역사회개발	(15)	6.6
	기타	(20)	8.9

주: 주된 활동의 경우, 무응답 1케이스를 제외하여 분석함.

2.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사회적 책임감

1) 사회적 책임감의 증가여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질문인 해외자원봉사활동과 참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책임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사전-사후조사 결과 해외봉사활동 후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은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 전 23.93점이었으나 활동 후 24.48점으로 평균 9일 만에 0.55점 높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이를 통해 단기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참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책임감 발달, 즉 대인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 차이

구 분	사전		사후		t값	p-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책임감	23.93	2.83	24.48	3.32	-2.623	.009

주: 2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사회적 책임감 향상의 세부요인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어떤 요인이 참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책임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결과, 활동기간 동안의 적극적 태도만이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간동안 적극적 태도로 임한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책임감의 증가폭이 더 컸다. 반면 앞서 국내 선행연구에서 등장한 최근 1년간의 국내 및 해외자원봉사활동경험, 지구시민교육 이수경험, 봉사활동 참여과정, 봉사활동 팀 규모 등의 세부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해외자원봉사활동이 국내자원봉사활동과 달리 사전경험·교육과 같은 사전준비나 참여동기, 팀 규모와 같은 참여태도 및 행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이 국내자원봉사활동과 다른 독특한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참가 청소년들 대부분이 해당 국가 및 활동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 전 사전교육을 받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팀 단위로 사전에 구성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사전에 어떤 특별한 마음의 준비나 교육 등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현지에 도착하면 그 같은 준비가 크게 별 효용이 없이 누구나 다 같은 소위 '제로 베이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은 낯선 외국 땅이라는 제약된 환경 때문에, 더욱 개인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는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 청소년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책임감 발달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이 대학생들에 비해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표 7> 자원봉사활동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 발달정도 차이

구 분		1단계		2단계	
		B(S.E)	β	B(S.E)	β
봉사활동 준비도	자원봉사활동 경험(ref : 없음)	.311(.481)	.043	.141(.484)	.019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ref : 없음)	-.629(.625)	-.066	-.777(.616)	-.082
	지구시민교육 이수(ref : 없음)	.453(.420)	0.71	.291(.413)	.046
봉사활동 태도 및 실태	봉사활동 참여동기	-		.008(.022)	.023
	봉사활동 태도	-		1.288(.321) ***	.269
	봉사활동 팀규모	-		.006(.033)	.013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767(.427)	-.122	-.422(.427)	-.988
	연령	.199(.114)	204	.125(.113)	.128
	학력	-2.557(.794) ***	-.366	-2.057(.792) **	-.294
모델요약	Adj. R^2	.056		.108	
	F(sig)	3.169(.005)		4.041(.000)	

주: 1) *** p<.001, ** p<.01
2) 종속변수: 사회적 책임감 발달정도 차=봉사활동 후 사회적 책임감 - 봉사활동 전 사회적 책임감
3) 2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 회귀모형 설명력의 과다계산을 막기 위하여, 변인 수와 모형에 대한 관찰치의 수를 고려한 조정된 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3.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와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1) 지속의지의 증가여부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의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의 봉사활동 지속의지를 비교해 본 결과, 해외봉사활동 전 지속의지는 12.90점, 활동 후엔 13.38점으로 평균 9일 만에 약 0.48점 증가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p<.01). 즉, 단기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참여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를 강하게 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차이

구 분	사전		사후		t값	p-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12.90	2.78	13.38	2.69	-2.940	.004

주: 2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지속의지 향상의 세부요인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어떤 요인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동기, 봉사활동 태도가 지속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봉사활동 참여동기가 강할수록, 봉사활동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봉사활동 지속의지의 증가폭이 더 컸다. 반면, 국내・외 자원봉사활동의 사전경험이나 지구시민교육 사전이수 여부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참여 청소년의 성별, 연령이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즉, 나이가 어린 청소년, 남자 청소년이 해외자원봉사활동 후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가 더 커졌다.

<표 9> 자원봉사활동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차이

구 분		1단계		2단계	
		B(S.E)	β	B(S.E)	β
봉사활동 준비도	자원봉사활동 경험(ref:없음)	.257(.372)	.045	.407(.372)	.071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ref:없음)	.307(.484)	.041	.317(.474)	.042
	지구시민교육 이수(ref:없음)	.444(.325)	.089	.494(.318)	.099
봉사활동 태도 및 실태	봉사활동 참여동기	-		.066(.017) ***	.247
	봉사활동 태도	-		.531(.247) *	.142
	봉사활동 팀규모	-		-.011(.025)	-.030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ref: 남성)	-1.567(.331) ***	-.319	-1.370(.328) ***	-.279
	연령	-.175(.089) *	-.228	-.183(.087) *	-.238
	학력	.638(.615)	.116	.722(.609)	.132
모델요약	Adj. R^2	.078		.143	
	F(sig)	4.188(.001)		5.195(.000)	

주: 1) *** p<.001, * p<.05

2) 종속변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차=봉사활동 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 봉사활동 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3) 2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4) 회귀모형 설명력의 과다계산을 막기 위하여, 변인 수와 모형에 대한 관찰치의 수를 고려한 조정된 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Ⅴ.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참가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특히 그들의 사회적 책임성과 봉사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연구문제 1)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세부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연구문제 2)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2011년 여름 아시아・아프리카의 6개국에서 실시된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참가 10개 팀, 227명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책임성과 향후 봉사활동 지속의지에서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들의 국내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선행연구와 외국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측정한 해외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이번 조사에 참가한 한국의 청소년들 역시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적, 지역사회・정치적으로 임파워먼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임파워먼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에서는 차이가 발견됐다. 국내자원봉사활동에서와 달리 해외자원봉사활동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간 동안의 적극적 태도만이 참가자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요인이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등장한 자원봉사활동 경험, 지구시민교육 이수경험, 봉사활동 참여과정, 봉사활동 팀 규모 등의 세부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낯선 외국 땅에서 수행하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의 특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참가자들 각자가 사전에 어떤 특별한 마음의 준비나 교육 등 준비를 한다고 해도 외국 현지에 도착하면 누구나 일제히 '제로 베이스' 상태에 놓여 개인적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추정이다. 국내자원봉사활동에서도 팀 활동이 강조되면 그 같은 개인 변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봉사활동은 그 환경의 제약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이다. 오직 자원봉사활동 기간 동안의 적극적 태도만이 임파워먼트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발견이다.

한편, 참가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선 성별, 연령, 학력이 임파워먼트의 각 단계에서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령은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원봉사활동의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가 더 높았다. 이는 대체로 10대 중・후반이 20대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 등 대인관계적 인성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고등학생 단기해외봉사활동의 중요성을 밑받침 하는 의미 있는 주요한 발견이다. 이와 다

르게 학력은 향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즉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 효과를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연령과 학력이 다른 결과를 보여,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의 해외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참여 청소년을 임파워먼트 한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강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10일~2주 정도 단기간으로 떠나는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비판적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그 짧은 활동이 얼마나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들에게 효과적이냐 하는 회의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봉사보다는 여행 아니냐" 하는 비판적 시각이 다수 있다(Simpson, 2004; Brav et al., 2002).

그 점에서 최근 해외자원봉사활동이 현지 수혜아동들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창호, 2011)가 있었지만,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 사업이 현지 주민들 외에도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목적임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향후 청소년 단기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지가 더 필요함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해외자원봉사활동은 대학생보다 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 더욱 임파워먼트 효과가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는 10대 청소년기가 심리정서적, 인성적 발달을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0대 청소년기에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 중 느낀 감정과 경험은 그들의 심리정서적, 인성적 발달을 돕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 외에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다수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해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심사평가에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이다(코피온, 2011).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고등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다시 활성화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잘 설계되고 수행

되어야 하는 점이다. 잘 설계되고 잘 진행된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이야 말로 참가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임파워먼트 효과를 높이며 현지 아동 및 주민들에게도 의미있는 결과를 남길 수가 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하는 사업인 만큼 비용/효과 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그 점에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청소년 해외봉사 사업을 설계, 수행하는 NGO 등 국제사업 기관·단체들의 경각심과 책무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권순미(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논문, pp. 3-8.

김기수(2010). 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상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김동배・조학래(199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1권, pp. 147-170.

김성종・엄성호(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영향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제11권, pp. 59-95.

김영호(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만족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1호, pp. 17-41.

김운중(200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헌(2010).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대구 시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pp. 117-138.

김진숙(199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대인 및 사회적 책임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철수(1996).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도시인의 개인적 속성. 한국사회복지학, 제28권, pp. 165-192.

김현진・이동수(2011).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과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제1호, pp. 243-270.

김호일・박화석・이인경(2003).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이 부적응 학생의 장애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제38권 제2호, pp. 403-425.

김희성(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기형・남미애・박경일・홍보선・이경희・장중탁(2001). 자원봉사론. 서울: 양서원

문성호・문호영(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 101-120.

박성복・김규희(2008).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복지행정논총, 제18권 제2호, pp. 91-113.

박세혁(2010). 여가서비스 자원봉사자의 조직존중감 인식과 감정적 충실도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3호, pp. 141-148.

박준홍・이환・조수연・김매이(2011). 여가로서의 자원봉사: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자의 기대일치도, 환경만족도, 대인관계가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5권 제2호, pp. 89~101.

성민정(2006). 해외자원봉사 관리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미라(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연구: 자아정체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은지용(2002). 청소년 봉사활동 반성 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석열(2004).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교육연구논총, 제25권 제1호, pp. 43-69.

이성은(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2호, pp. 313-335.

이성철(2003). 대학 해외봉사활동 현황과 활성화방안. 홀리스틱교육연구, 제7권 제1호, pp. 75-96.

이수연・김형모(2011).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행청소년에게 미치는 임파워먼트 효과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0호, pp. 207-228.

이지윤(2003). 사회성 발달을 위한 청소년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저소득재가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창호(2011). 해외봉사활동이 수혜국가 아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캄보디아 빈곤아동들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경성대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pp. 213-239.

장덕희・이명옥・양정도(2011).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포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9호, pp. 121-146.

최경자・송다영(2008).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자의 유형별 갈등요인이 만족도와 지속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6권, pp. 138-158.

코피온(2011). 코피온 2011년 총회자료.

허성호・정태연(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 143-164.

홍연숙(2002).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결정요인.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1호, pp. 75-97.

황선영(2006).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및 지속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8권 제1호, pp. 99-124.

World Friends Korea 통합시행 TF.(2010). World Friends Korea 통합 시행 계획(안).

Brav, J., Moore, A., and Sherraden, M.(2002). *Limitations of civic service: Critical perspectives*(CSD Working Paper 02-12).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Clary, E. G. and Snyder, M.(1999). The motivations to volunteer: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8 No. 5.*

Cnaan, R. A. and Cascio, T. A.(1998). Performance and commitment.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24*, pp. 1-37.

Cohn, S. F., and Wood, R. E.(1985). Foreign aid at the grass roots: The Interaction of peace corps volunteers with host country people. *Human Organization, Vol. 44 No. 2,* pp. 167-171.

Cross, M. C.(1998). *Self efficacy and cultural awareness: A Study of returned peace corps teachers. paper presented.*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Diego, CA.

Davis Smith, J., Ellis, A., and Howlett, S.(2002). *UK-wide evaluation of the millennium volunteers programme*(Research Report No. 357). London: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European Voluntary Service(EVS).(2001). "Youth for Europe" and "European Voluntary Service" Evaluation Report.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Fantini, A. E., & Tirmizi, A.(2007).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Brattleboro, VT: Federation of the Experiment in International Living.

Gran, B.(2006). Public-private obstacles to voluntary service and citizenship. In H. Williamson, B. Hoskins & P. Boetzelen (Eds.), *Charting the landscape of European youth voluntary activities* (pp. 121-133). Strasburg, France: Council of Europe.

Hackman, J. R. and Oldman, G. R.(1975). Demographic understanding of volunteerism.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Vol. 12 No. 4,* pp. 798-816.

Morrissey M. K. and Werner-Wilson, R. J.(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out-of-school activitie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s of communities and family. *Adolescence, Vol. 40*, pp. 67-85.

Mutz, G., and Schwimmbeck, E.(2005). Voluntary activities and civic learning: Findings of a preparatory survey for a European case study. In H. Williamson , B. Hoskins & P. Boetzelen (Eds.), *Charting the landscape of European youth voluntary activities* (pp. 165-171). Strasburg, France: Council of Europe.

Powell, S., Bratovic', E., & Dolic', A.(2007). *Pro-social values/behaviour and employability among st young people in SEE and the impact of volunteer work camps*. South-East European Youth Network and proMENTE Social Research, Sarajevo, Bosnia and Herzegovina. Available online: http://www. seeyn.org/ index.php?module=189&id=168&smid=189&act=more.

Purvis, T. G.(1993). *Partnership in crosscultural mission: The impact of Kentucky Baptist short-term, volunteer missions.* Unpublished dissertation, Asbury Theological Seminary, Wilmore, KY.

Rehberg, W.(2005). Altruistic individualists: Motivations for international volunteering among young adults in Switzerland. *Voluntas, Vol. 16 No. 2,* pp. 109-122.

Sherraden, M. S., Lough, B. and McBride, A. M.(2008). Effects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and servic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predictors. *Voluntas, Vol. 19,* pp. 395-421.

Simpson, K.(2004). "Doing development" The gap year, volunteer-tourists and a

popular practice of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16*, pp. 681-692.

South House Exchange and Canada World Youth(CWY).(2006). *Canada world youth impact assessment: Synthesis report*. Montreal, Quebec: CWY.

Stein, M. I.(1966). *Volunteers for peace: The first group of peace corps volunteers in a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Colombia, South America*. New York: Wiley.

Thomas, G.(2001). *Human traffic: Skills, employers and international volunteering*. London: Demos.

Watson.(1993). How effective is your training of volunteers?. *Journal of Volunteer Administration, VII*(1-2), pp. 58-60.

Wilson, J.(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pp. 215-240.

Zimmerman, J.(1995). Beyond double consciousness: Black peace corps volunteers in Africa, 1961-1971.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2 No. 3,* pp. 999-1028.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on Youth Empowerment

Lee, Chang-Ho* · Kim, Yeonwoo**

International volunteering by young people has been growing rapidly in Korea. However, few studies, if any, explor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on these young people's sense of empower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1) whether or not international volunteering has an effect on the empowerment of young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se activities and 2) the socioeconomic and program factors and attributes of these participants which may influence or even cause these empowerment effects. The study made use of a pretest-posttest survey, using 227 young people (middle school to university-level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volunteering programs in Asia and Africa during the summer of 2011. The findings are: 1) participants' responses in relation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will to continue to volunteer rose significantly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2) a "positive attitude" during the volunteering perio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owerment when comparing pretests and posttests. This contrasts with domestic studies which found that experience, prior education,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process itself (amongst other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empowerment, and 3) the younger the ages of the volunteers, the higher the empowerment effects.

Key Words : youth international volunteering, empowerment effect,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투고일 : 3월 12일, 심사일 : 4월 24일, 심사완료일 : 4월 24일

* Namseoul Universit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